

사설

한국어 능력, 유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의 전공에 아무리 많은 흥미가 있어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학업은 물론 유학생할 그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공 수업의 경우, 내국인 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 기준으로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지만, 실상 TOPIK 3급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못 된다. 대학이 설정한 '낮은' 기준은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며 많은 학생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에 설치된 관련 제도들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세계와 시민 교수는 "외국인 학생들이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은 편"이라며 씁쓸한 현실을 내비치기도 했다. 학생 사회 일부에서 끊이지 않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부족한 한국어 능력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내실을 기해야 할 중요한 배경인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 보완이 필수다.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 언어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 TOPIC 3급보다 더 높은 기준을 두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일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연세대와 성균관대처럼 입학 후에도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강제할 수 있는 꼼꼼한 제도가 차선책으로나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과 문화 측면에서도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가령, 중앙 부서에서 진행되는 언어 교육이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단과대학이나 유학생회가 연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소모적인 내외국인 학생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국인 학생을 바라보는 대학의 인식이 변화될 때 가능할 듯하다. TOPIC 기준을 올릴 경우 "외국인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대학의 우려는 유학생의 재정적 기여에 비해 취할 때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또한 유학생 수 급감은 대학의 국제화 지표에서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에 대학의 우려는 현실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부에 적을 둔 외국인 수가 전체 학부생의 10%를 넘기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유학생을 재정이나 평가지표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볼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예전처럼 어쩌다 한 명씩 있는 유학생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외국인이 무시 못 할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은 수업의 질 자체를 좌우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대학의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은 생각보다 시급한 듯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전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화된 마당에 대학이 제도 개선을 미룰 여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시봉

팅커벨습격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최근 잠실 야구경기장 하늘에 하얗게 눈이 내린 듯한 뿌연 사진이 화제가 됐다. 화려한 날개로 일명 '팅커벨'이라 불리는 '동양하루살이'떼가 습격한 것이다. 동양하루살이는 야구를 관람하던 관중들에게 무수히 떨어졌으며, 이들로 뒤덮인 취재진의 모습은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매년 5월~6월이 되면 한강 접경 지역에서는 동양하루살이가 부화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급격히 상승한 기온 탓에 작년에 비해 빠르게 출몰했다. 이어진 동양하루살이의 개체 수의 급증과 다양한 벌레떼들의 출몰로 전문가들은 그 원인 파악과 방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환경부·기상청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 성체로 자라는 모기의 수가 27% 증가한다. 한강 지류 수온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2도가량 증가했다. 이는 동양하루살이의 물속 유충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줘 개체 수 급증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생물연구팀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하는 이유를 생태환경의 개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는 8.3㎡에서 11.6㎡로 증가했다. 인간이 사는 공간에 하천과 공원 등이 증가하며 이들의 생활반경이 넓어진 것이다. 더불어 한강 주변 환하게 불을 켜놓은 상권 또한 벌레들의 대량 출몰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에만 사는 익충으로 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 주요 서식지인 한강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적극적인 방역이 불가능하다. 이에 벌레의 창궐을 막는 대안으로 살충제만이 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생태계의 균형을 깬 것도, 이에 급증한 벌레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모두 인간으로 시작한다. 어쩌면 곤충들의 터전 속에 인간이 들어왔음에도 자연히 사그라들 벌레들을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곤충들에게 '인간 습격'은 아닐지 생각해보며 벌레들과의 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임차인과 지자체, 임대업자의 공생

돌다리도 두드려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나는 월세에 비해서 방의 수준이 훨씬 떨어진다", "집주인과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산다" 거주 공간이 부족한 서울권 대학생들은 주거의 질을 포기하고 있었다. 지불하는 월세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느껴도 대학생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학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 힘들다. 기숙사를 늘리는 것은 부지 부족, 학교 인근 임대업자들과의 이익 충돌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주거정책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들 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돌다리도 하나하나 두드려 간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며 매매, 전세 등 크고 작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주거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주(住)'는 의식주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만큼 집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는 뜻이다. 집은 더 이상 단순히 휴식만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다. 업무를 보는 회사일 수도, 운동을 하는 헬스장일 수도,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일 수도 있다. 여러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 공간이 된 셈이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등 임차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임대업자는 임차인과 협력하고 공생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만평 대학생 주거 난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국대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2-961-0093~5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